

선동주

교수

헌법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기본강의

- 헌법이론, 조문, 판례를 변호사시험에 적합하게 분석·정리함으로써 헌법 과목의 기초지식체계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
-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중요사례, 중요조문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기를 형성
- 선이해후암기의 핵심요소인 키워드의 분석정리
- 선택형·논술형시험에 공통되는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

일 정

2. 17 (월) ~ 3. 7 (금), 총 15 회, 월~금, 오후 2:00~5:30

교 재

- [주교재] 헌법집중(전정5판, 선동주·김강노 공저)
- [부교재] PPT 필기노트(출력자료)

강 사
약 력

- 월비스 변호사 팀장(대표강사)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전임교수 및 월비스 평생교육원 대표교수
 - 성균관대 로스쿨 등 특강강사
 - 한양대 로스쿨 등 모의고사·학력평가시험 출제위원
 - 월비스 변호사 팀장(대표강사)
 - 월비스 7급공채 팀장(대표강사)
 - 월비스 9급공채 팀장(대표강사)
 - 월비스 5급공채 전임강사
 - 월비스 법원행정고시 전임강사
 - 네오고시뱅크·하우패스 경정승진 전임강사
 - 월비스 경정승진·경찰간부·일반경찰 전임강사
 - 월비스 법원 9급공채 전임강사

L A W S C H O O L

헌법 기본강의

강 의 소 개

I. ‘기본강의’ 진행방법**1. 강의목표**

‘기본강의’는 헌법 과목의 기초를 정립하는 강좌입니다. 헌법기본서인 ‘헌법집중’에 수록된 헌법이론, 조문, 판례를 변호사시험에 적합하게 분석·정리함으로써 헌법 과목의 기초지식체계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각종 자격시험 및 공직채용시험의 공통된 출제경향인 판례시험화 추세를 고려하여,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중요사례, 중요조문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기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의교재

‘헌법집중(전정5판)’은 헌법이론, 조문, 케이스판례를 통합구성한 실전 기본서입니다. 전정5판은 총 356쪽으로 압축되어 최종정리 용도로 활용 가능한 기본서로서 극강의 실용성을 갖추었습니다. 책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들을 간추리고 원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낯선 단어들을 익숙한 용어로 대체하는 작업을 통해 구판 대비 250쪽에 가까운 분량을 축소하였습니다.

‘헌법집중’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직관적인 주제어와 코멘트를 기술하여 헌법적 논의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둘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여 각인된 정리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셋째, 본문 내용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기초법개념들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④ 넷째,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헌법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한 기출항목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3. 제공자료

기본강의에서는 ‘헌법집중 Keynote’에 수록된 “논점세트” 도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PPT 도표로 진도별 학습 내용을 개관합니다. Keynote 교재가 없어도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논점세트”가 반영된 필기노트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논점세트”는 기본서에 담긴 콘텐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간추린 것으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될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헌법 기본강의**강 의 소 개****4. 강의특징**

‘기본강의’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강의진행을 위해 ① 중요쟁점의 분류 및 실전적 단권화정리(기출쟁점의 분석·집계를 통한 중요쟁점의 이해·정리), ② 선이해후암기의 핵심요소인 키워드의 분석정리, ③ 선택형·논술형시험에 공통되는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II. 수강 및 학습가이드**1. 예습방법**

‘기본강의’ 과정에서 예습은 필수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강의 전날이나 당일 ‘헌법집중’의 당일 진도 부분을 목차위주로 가볍게 속독 후 수강에 임한다면 강의흐름을 파악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복습방법

‘기본강의’ 과정에서 복습은 필수항목에 해당합니다. 복습시에는 기본서 내용 중 기출표시가 부여된 부분과 강의에서 강조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약을 조절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일 진도 범위의 학습 내용을 ‘헌법집중 Keynote’ 또는 ‘필기노트’의 논점세트를 통해 다시 숙지하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3. 질문방법

집중력 있는 강의진행을 위해 되도록 강의를 마친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카페 “선동주 헌법”을 통해 질문을 하셔도 무방하나,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당부의 말씀

‘기본강의’는 헌법지식의 기본기를 습득하는 최초의 과정입니다.

당해 강의일정 내에서 헌법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기초실력을 확보하려면 수강 및 학습에 완전히 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강의교재인 ‘헌법집중’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에 강의일정 및 강의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선동주 교수 강의계획서**헌법 기본강의**강의
진도표

회차	강의일자	강의진도	강의내용 [헌법집중(전정5판) 기준]
제1회	2/17(월)	326-338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위헌법률심판 I
제2회	2/18(화)	339-352	위헌법률심판 II, 헌법소원심판 I
제3회	2/19(수)	352-364 80-93	헌법소원심판 II, 권한쟁의심판,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보호의무, 기본권의 갈등
제4회	2/20(목)	94-120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기본권의 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평등권 I
제5회	2/21(금)	121-149	평등권 II,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제6회	2/24(월)	150-16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7회	2/25(화)	168-193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I
제8회	2/26(수)	194-221	재산권 II,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참정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I
제9회	2/27(목)	222-248	재판청구권 II,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제10회	2/28(금)	249-276	근로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국민의 기본적 의무, 대의제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정부형태, 의회주의,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제11회	3/3(월)	277-305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대통령
제12회	3/4(화)	306-325 2-11	행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법권의 독립, 법원의 조직, 사법절차와 운영, 법원의 권한, 헌법의 의의,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헌법의 변경, 헌법의 수호
제13회	3/5(수)	12-39	대한민국헌정사,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I
제14회	3/6(목)	39-52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II, 정당제도
제15회	3/7(금)	53-78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변호사시험 헌법시험 총평 및 헌법 공부방법

(선동주 헌법연구소)

I. 변호사시험 헌법시험 총평**1. 선택형 시험 출제경향 분석****(1) 일반적 출제경향 분석**

현재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시험의 전통적 출제범위에 포괄되는 이론, 조문, 판례 중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출제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일반적인 출제경향으로는, 사건속지나 법리분석을 묻는 판례지문들이 방대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 근본적 통치기구의 조직운영체계, 헌법재판절차 등 실무적격성 판단에 관계되는 조문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다는 점,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기본권 파트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으로서 양적 우위를 가지지만 정리부담이 큰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정리부담이 크고 출제비중이 높은 영역으로는 헌정사, 기본제도 및 통치조직, 헌법재판소 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각 영역을 구성하는 내용들의 대다수는 이해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이해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순수 암기요소의 정리를 병행한다면 수험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전략적인 시험대비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① ‘기본권’ 파트는 정리할 분량이 가장 많은 영역이지만, 개별 인권유형의 연원과 보장취지에 기초하여 쟁점별 분석력을 확보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② ‘헌정사’ 파트는 우리나라 입헌정치사의 포괄적 분석력을 요하는 영역이지만,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개혁의 취지와 직결되는 제도적 사항들의 도입과정이 출제되고 있으며, ③ ‘기본제도’, ‘통치조직’ 파트는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량이 방대한 영역이지만, 제도취지에 직결되거나 시사적 이슈 또는 중요판례가 형성된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 파트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조직, 헌법소송의 절차에 관한 포괄적 지식을 요하지만,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직결되는 판례 및 관련 조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시험 헌법시험에서는 최신헌법판례가 유력한 출제대상이면서 불의의 타격요소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들은 대부분 기본서나 문제집 등에 수록·반영되어 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상반기에 선고된 최신판례는 특강이나 교재를 통해 별도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최신판례 문제는 대부분 결정주문에 직결되는 요지의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므로 학습부담은 크지 않지만, 이를 도외시할 경우 결정적인 패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여야 합니다.

헌법 기본강의출제경향
및
공부방법**2. 사례형 시험 출제경향 분석**

사례형 시험은 최신판례, 실무적인 논점, 공법 통합논점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사례 및 쟁점의 구성에 있어서는 시사적 이슈가 결부되거나 최근에 선고된 중요판례 사안을 배경으로 한 기본적인 쟁점들이 주된 출제대상입니다.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시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험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복수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양한 쟁점이 얹혀있는 문제구조로 인해 차분하게 논리를 떠나가기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수험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덕목이지만 개념,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문제 연습량을 모두 갖추어야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키워드 없는 장황한 지식로는 일정한 리듬으로 써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였다고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인형뽑기업 규제조항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범위 확정 및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준수 여부, 위 심판대상의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사업자들의 제한되는 기본권 특정 및 그 침해 여부[헌재 2022.9.29. 2018헌마755(기각), 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58274, 헌재 1995.4.20. 92헌마264등(기각)],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질문내용 원내 기자실 사전 발표 및 홈페이지 질문자료 게시, 허위내용 발언 등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대법원 1992.9.22. 91도3317, 대법원 2011.5.13. 2009도14442, 대법원 2007.1.12. 2005다57752, 대법원 2002.5.10. 2000다68306)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로스쿨에 게시된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총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변호사시험 헌법 공부방법**1. 헌법공부의 특성**

헌법은 정리부담이 큰 과목에 속하지만 일단 장악력이 형성되고 나면 함부로 배신하지 않는 효자과목이기도 합니다. 헌법과목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체계적 학습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헌법시험의 출제대상이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유권적 해석(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무권적 해석(학설)의 총체라는 광범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방대한 헌법과목의 시험대상을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 문제 분석에 기초한 헌법조문 및 헌법판례 중심의 학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체계적 학습방법**(1) 이해와 정리**

헌법과목을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은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학적 논의의 체계적 범주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헌법은

헌법 기본강의출제경향
및
공부방법

목표조항인 기본권과 수단조항인 통치구조 및 일반이론인 헌법총칙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기본권에 관한 헌법학 논의는 ‘기본권총론’, ‘기본권각론’으로 구분되고, ‘기본권총론’은 다시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보호의무’, ‘기본권의 갈등’,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기본권의 보호’ 등으로 세분되며, 이러한 주제들은 이론·조문·판례로 이루어진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르는 학문체계를 파악하면서 주제별 중요쟁점을 학습하는 것이 올바른 헌법공부의 시작입니다.

헌법은 추상성 내지 구조적 개방성의 속성으로 인해 행정법 등 구체화입법과 구별되는 고유한 정리부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이해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사안들, 이해를 넘어 적극적 암기까지 요구되는 항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의 분석정리, 핵심쟁점요소의 두문자정리 등 적극적인 정리방법을 동원하여 정확한 지식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선택과 집중

다양한 수험도구들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자료의 홍수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적합한 수험방법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학습을 수행해야 하므로, 선택과 집중의 학습 전략은 헌법수험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됩니다. 시험에서 검증이 요구되는 지식의 범주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집중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험강의를 섭렵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증된 수험도구의 도움을 받아 실용적인 지식체계를 범주화하고 순차 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 학습방법

(1) 선택형시험 대비방법

(가) 기출문제 분석에 기초한 학습

방대한 헌법과목의 수험영역을 객관적으로 한정하여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체계적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출문제의 분석에 기초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기출문제로 현출된 출제의 의도는 장래의 출제를 암시하는 지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큰 매체이므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학습범주의 마련이 강조됩니다.

(나) 헌법조문 및 헌법판례 중심의 학습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헌법조문은 헌법학의 본체로서 이와 직결되는 내용의 헌법이론·헌법부속법률을 포함하여 중요한 출제대상이 됩니다. 헌법조문은 수험과정 전반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의 기준이 되므로 기본교재의 학습과 정에서부터 단원별, 주제별로 관련된 헌법조문을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헌법 기본강의출 제 경 향
및
공 부 방 법

반드시 최종정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법학과목은 판례시험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완성도 높은 판례가 법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과 판례가 복수정답의 시비 등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가장 객관화된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험경향에 비추어 볼 때 선택형 시험의 포괄적인 대상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비중구분이 필요한바, 중요 헌법판례와 이에 직결되는 내용의 헌법조문·헌법부속법률·헌법이론을 중심으로 확장 학습을 하는 것이 수험적합성 있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논술형시험 대비방법

논술형시험의 경우 문제해결의 도구인 헌법쟁점들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적 논리들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일반도구와 개별도구의 구별을 전제로 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헌법 재판의 적법요건, 비례심사의 기준, 평등권침해의 판단도식 등 적법판단과 본안판단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기본권, 기본원리, 기본제도의 보호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활용범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재의 목차를 활용하여 논술형 쟁점 항목들을 편, 장,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숙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풀이 과정에서는 논점을 확정하고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거법 즉 사례쟁점과 무관한 쟁점 항목을 제거해 나가며 적용항목을 확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경우들이 빈발하므로 논점의 일탈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쟁점리스트의 적극적인 숙지가 요청됩니다.